# 참된 성품엔 유위가 공하다

〈有爲〉



지안 스님의 〈능엄경〉 강해

㉖ 참된 성품

**〈원문〉** 그때 부처님이 게송을 설하여 말씀하셨다. "참된 성품에는 유위가 공하건만 연(緣)으로 생기는 까닭에 허깨비와 같으며 무위(無爲)는 일어나고 소멸함이 없어서 실답지 못한 것이 허공꽃과 같으니라. 허망함을 말하여 진실을 나타내려면 허망과 진실이 둘 다 허망이니 진실도 아니고 진실 아닌 것도 아니거니 어찌 능견과 소견이 있으리오. 중간이란 실제 성품이 없으니 이렇기 때문에 갈대와 같으며 매듭을 묶고 매듭을 푸는 것이 인한 바가 같아서 성인이나 범부가 둘이 없느니라. 네가 식(識)의 성품을 보아라. 공(空)도 아니고 유(有)도 아니니 미혹해 어두우면 무명이요. 펴서 밝히면 해탈이니라. 매듭을 푸는 데는 차례가 있나니 육근(六根)의 매듭이 풀어지면 하나도 없느니라. 근(根)에서 가려 원통을 택하면 법의 흐름에 들어 정각을 이루리라. 아타나의 미세한 식(識)은 습기가 폭류를 이루나니 진실과 진실 아닌 허망에 미혹될까 두려워하여 내가 항상 연설하지 않았노라. 자기 마음에서 자기 마음을 취하면 허깨비 아닌 것이 허깨비가 되느니라. 취하지 아니하면 허깨비 아닌 것도 없으리니 허깨비 아닌 것도 오히려 생기지 않거늘 허깨비 같은 법이 어떻게 성립되리요, 이것을 이름하여 묘연화 금강왕보각이라 하며 허깨비 같은 삼마제라 하느니라. 손가락 한 번 퉁기는 사이에 무학을 뛰어넘으리라."

**〈강설〉** 5권에 나오는 부처님의 게송 설법이다. 참된 성품이란 여래장묘진여성이다. 줄여서 진성이라 했는데 곧 불성(佛性)을 말한다. 이 불성 자체에는 유위법이 없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반대되는 말인 무위법이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는 것이다. 유위법은 인연으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마술사가 마술을 부려 나타내 보이는 모습과 같다고 했고 무위법은 허공꽃(空華)과 같다고 비유를 했다. 진성의 자리는 유무(有無)를 초월하기 때문에 유위, 무위로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구사론이나 유식 등에서 법을 분류하여 오위법(五位法)으로 말할 때 허공이나 열반을 무위법의 범주에 넣기도 하지만, 성(性)은 특정 범주가 없다는 것이다. 유위는 있는 것을 말하고 무위는 공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진성은 유위도 아니고 무위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실답지 못한 것이 허공꽃과 같다고 했다. 보통 범부 중생은 유에 집착하고 이승들은 무에 집착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집착이 생기는 것은 성에 미혹했기 때문이다. 성에 미혹되면 진(眞)이 될 수 없다. 망(妄)을 말하여 진(眞)을 나타내면 망(妄)과 진(眞)이 둘 다 망(妄)이 된다고 했다. 무척 어려운 말이지만 성(性)은 논리를 세워 판단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래서 진실도 아니고 진실이 아닌 것도 아니어서 능소(能所)가 없다고 했다. 진실이 아닌 것은 허망도 아니란 말이다. 능견과 소견은 근(根) 진(塵)이다. 근은 주관을 이루고 진은 객관을 이룬다. 그래서 근진이 상대하면 주객이 나뉘어져 식심분별이 일어나지만 성품 자리는 주객이 없는 자리라는 것이다. 성품 자리인 본마음에 매듭이 생긴 것을 근(根)이라 하여 육근(六根)을 여섯 매듭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부처님이 수건을 묶어 여섯 매듭이 생기게 하고 이것을 푸는 것을 아난에게 말해주는 대목이 육해일망장(六解一亡章)이다. 육근이 맺히면 범부이고 풀리면 부처인데 중생은 맺혀 있는 육근에 집착하고 부처는 풀려버렸기 때문에 집착이 없다. 집착하는 것은 생사의 경계이고 집착이 없는 것은 열반의 경계인데 맺히고 풀리는 것은 육근을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생이나 부처가 두 길이 없다고 하였다. 유에 집착하는 범부나 공에 집착하는 이승(二乘)이 다 틀렸다는 것이다. 진성을 미혹하면 어두운 무명이 되고 펴서 밝히면 해탈인데 매듭을 차례로 풀어서 여섯이 풀리면 하나도 없다 하였다. 이 말은 매듭이 다 풀리고 나면 풀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다.

아타나(阿陀那)는 팔식의 다른 이름으로 모든 업의 종자를 간직해 있으면서 없어지지 않게 한다는 뜻의 이름이다. 이 식에 있는 습기가 세차게 흐르는 폭류와 같다는 말이다. 이 폭류가 곧 업종자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 모든 경계 허공해탈 관점서 봐야



구선 스님의 〈묘법연화경〉 강의

㉖ 보시바라밀

경계의 제도는 존재목적을 성취시켜주는 것이다. 아픈 사람은 아픔을 치료해 주고 소원이 있는 사람은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것이 경계의 제도이다. 경계를 제도할 때는 금강해탈도와 허공해탈도가 함께 활용된다. 본성으로 비춰주면서 관여되지 않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금강해탈도를 행하는 것이다. 존재목적을 성취시켜주기 위해 사유하는 것이 허공해탈도를 행하는 것이다. 경계를 제도하기 위해서는 모든 경계를 허공해탈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 허공해탈의 관점으로 경계를 바라보는 것이 창조의 시작이다. 중생의 가치는 창조적 행위를 통해 실현된다. 세간에 펼쳐진 수많은 다양성은 그만큼의 허공해탈을 이룰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음악, 미술, 문학, 기술, 다양한 문화와 문명을 통해 허공해탈이 이루어진다.

부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허공해탈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법을 활용할 수 있다. 모든 현상을 허공해탈의 관점으로 바라본다. 본성을 활용하는 것을 체용(體用)이라 하고 경계를 활용하는 것을 상용(相用)이라 한다.

금강해탈뿐만이 아니고 허공해탈적 관점으로도 체용과 상용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대적정문과 대자비문이 구족해진다. 이것이 본성으로 행해지는 두 번째 유형의 보시이다. 간극의 적멸상에 머물러서 보시를 행한다. 이때의 보시는 자리이타(自利利他)이다. 간극의 적멸상을 활용해서 자기 안, 이, 비, 설, 신, 의를 제도한다. 이것이 바로 이때에 행해지는 자리행(自利行)이다. 간극을 활용해서 눈을 제도한다. 반개를 하고 위 눈썹과 아래 눈썹을 선으로 인식한다. 그런 다음 그 두 개의 선 사이를 채우고 있는 공간을 들여다본다. 두 개의 선 사이에서 인식되는 빈 공간을 간극으로 삼는다. 그 간극을 통해서 '본다' 라는 생명의 느낌을 들여다본다. 맑고 투명한 식의 바탕이 인식되면 보는 작용이 제도된 것이다. 보는 것이 제도되면 이때부터는 이타행(利他行)을 행한다.

보이는 모든 경계를 맑고 투명하게 보는 것이 이때에 행해지는 보시바라밀이다. 간극을 활용해서 귀를 제도한다. 양쪽 어금니를 지긋하게 물었다가 힘을 빼면서 귓속의 변화를 느껴본다. 이 동작을 반복해서 하면서 소리 경로가 열고 닫히는 것을 인식한다. 소리 경로를 따라 귓속으로 들어간다. 양쪽 귓속에서 텅 빈 공간을 인식한다. 그 두 개의 공간이 양쪽에서 서로 마주 보게 한다. 텅 빈 공간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감각적으로 들여다본다. 때로는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모든 소리가 끊어진 적멸처를 인식하게 된다. 벌레 우는 소리, 바람 소리, 속삭이는 소리 등등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린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 소리들이 뚝 끊어진다. 소리가 끊어지면서 적멸처가 나타나면 그 적멸처의 상태를 눈으로 들여다본다. 그런 다음 그때의 공간감과 형질감을 감각으로 인식한다. 귓속의 텅 빈 느낌은 주기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약 2분 30초 간격으로 적멸처가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다시 소리가 일어난다. 턱관절에 힘이 들어가면 소리가 들리고 힘이 빠지면 적멸처가 드러난다. 이것이 소리 경로에서 형성되는 첫 번째 간극이다.

양쪽 귓속에 형성된 적멸처를 관하다 보면 두 개의 적멸처가 하나로 합쳐진다. 처음에는 두 개의 적멸처가 좁은 관으로 연결된다. 시간이 지나면 전체 공간이 하나로 합쳐진다. 양쪽의 적멸처가 합쳐지면 중간 지점에서 더 큰 적멸처가 형성된다. 그렇게 되면 중간에 형성된 적멸처를 시각과 감각을 활용해서 들여다본다. 이것이 소리 경로에서 세워지는 두 번째 간극이다.

〈영양 연화사 주지〉



지흐 스님의 〈능가경〉 강설

㉖ 속박과 해탈

# 욕망은 정점이 없다

'제 줄로 제 몸을 묶는다[自繩自縛].' 는 말이 있다. 자신이 한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구속되어 괴로움을 당할 때 사용한다. 여기에서 '구속되어' 라는 말과 '괴로움을 당할' 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아마도 좋지 않은 일이 당사자에게 일어난다는 뜻으로 쓰였을 것이다. 이런 언어들을 깊이 있게 사유한다는 것은, 눈과 귀로 보고 듣는 표면적인 이해나 언어가 가지고 있는 단순한 뜻의 소통으로 한정 짓지 않는 것이다. 채택된 언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미완의 점을 찾아내는 일이다. 통찰은 그런 언어를 완성하는 보이지 않는 눈이다. 언어가 사용될 때 통찰은 그 언어를 살아나게 한다. 통찰은 어떤 시작점을 만들지 않아서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치우침 없는 중심을 잡게 된다. 하지만 통찰이 없으면 중심을 잃고 어느 쪽으로 치우치는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그 언어를 죽게 만든다. 죽은 언어는 서로에게 상처를 입힌다. 언어가 한 쪽에서 사용하는 무기가 되어선 안 된다. 언어는 서로의 눈을 뜨게 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만 최적의 효용을 이용하지 못할 뿐이다.

언어는 우리를 구속한 적이 없다. 우리가 '나' 라는 개체의 시작점을 만들면서 본질에서 멀어진 분별이 사실같이 인식되어진 것이지, 그 인식이 사실은 아니다. 세상에는 어떤 물질도 중심이 될 수 없다. 구속할 수 있고 괴로움을 당할 수 있는 실체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 그런데도 우리는 구속되고 괴로움을 당한다. 만들 수 없는 '나' 를 만들어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어리석음이지만 이것이 왜 어리석음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다. 그것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최고의 정점에 오르고자 하는 욕망 때문일 것이다. 그것이 물질이든, 감촉이든, 인식작용이든, 어떤 한 맛을 느끼고자 하는 바람인데 그것이 속박이고 어리석음이다. 욕망은 정점이 없다. 더 오르거나 내려갈 여지없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대로가 욕망의 정점이다.

"일체가 자기 마음의 현량경이며, 유와 무의 일체 자성에 볼 수 있는 현상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되네. 볼 수 있는 현상이 없는 속에서 적정이 이어지니, 이 때문에 일체법에 대해 이어진다느니 이어지지 않는다느니 하는 생각조차 사라지네. 그리고 이 속에서는 속박이라 할 것도 해탈이라 할 것도 모두 사라져 버리네."

지금 그대로 각각의 조건들이 속박 없는 완전한 해탈이다. 인위적인 변환이 필요 없다. 차차 가장 낮은 단계의 물질의 세상에서 가장 큰 만족을 얻는다. 내일을 위함이 없다. 지금 여기에서 매일 조건 없는 해탈을 만끽한다. 따로 손에 가져야 하는 것도, 피부에 느껴야 하는 것도, 두뇌에 기억해야 하는 것도 없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일들에 선택 없는 선택을 한다.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가지지 못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 마지막을 알기 위해 내일을 위하는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 바로 일어나는 그것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다. 양변을 일으키는 자는 지혜가 없다. 그 지혜 없는 자를 '나' 라고 하는 것이 속박이다. 속박이 있으면 해탈이 있겠지만 속박이 없으면 해탈도 없다. 진정한 해탈은 해탈이 없음을 아는 것이다. 해탈이 없음을 알 때, '나' 라는 속박에서 벗어나게 된다. '나다, 나의 것이다, 나의 자아다.' 라고 이름 붙여야 할 대상을 만들게 되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속박에 묶인다. 속박은 속박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만족스러움도 있으니 버리는 것이 쉽지 않다. 지금 부족하더라도 다음에 될 것 같은 마음이 든다. 이런 생각들이 본질을 벗어난 생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환은 실재가 될 수 없다. 언제나 환이다. 그러니 다음에 될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어리석은 생각이다. 오온은 내가 될 수 없다. 이것이 사실이다. 이 사실을 미루고 오온을 '나' 로 만들려는 시도는 하면 할수록 꼬인다. 오온에게는 즐거움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즐겁다고 느끼는 것은 즐거워서가 아니다. 갈증에 대한 해소 때문이다. 그러나 오온이 원하는 것은 타는 듯한 갈증을 해소하지 못한다. 오온이 내가 아님을 바르게 알 때 그런 갈증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그러면 오온을 '나' 라고 하지 못한다. 이것이 진정한 해탈이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사명 | 지사장 | 연락처 | |
|---|---|---|---|
| 부산지사 | 이도경 | T 051-405-9402 | H 010-5640-8883 |
| 경남지사 | 성낙두 | T 051-512-1761 | H 010-3860-7008 |
| 대구경북지사 | 배철완 | T 053-985-9190 | H 010-6780-9190 |
| 광주전남지사 | 양행선 | T 062-512-5003 | H 010-2629-1508 |

| 지사명 | 지사장 | 연락처 | |
|---|---|---|---|
| 전북지사 | 조동제 | T 063-910-8977 | H 010-8642-7733 |
| 영주지국 | 박영애 | T 054-634-3429 | H 010-9373-3778 |
| 문화사업단 | 구광국 | T 02-2004-8213 | H 010-3048-4008 |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